

#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충실하겠다”

제7회 목포시사회복지사의 밤 성료

이랜드복지관서 만찬·유공자 표창

정석왕 한국복지사협회장도 참석

“동료들간 노고 공감…힐링의 시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목포이랜드 복지관에서 제7회 목포시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켜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사장에는 수많은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목포이랜드복지관에서 제7회 목포시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열어 올 한 해 복지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돌본 복지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목포시사회복지협회 제공>

사회복지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준비된 만찬과 공연, 시상식 등을 즐기며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눴다.

또 정석왕 제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 출신인 정 회장의 참석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으며,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정 회장을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출발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협회는 복지 현장에서 모범적인 활동과 성과를 보여준 우수 종사자들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동료들의 노고를 함께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 “지친 연말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미경 협회장은 “목포시사회복지사의 밤은 단순한 연말 행사를 넘어 동료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다시 뭉 힘을 얻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과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 동강대 BI센터, 수도권서 ‘IR-DAY’ 성료

광주·전남 창업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

10개사 참여…전문가·투자자 등 피드백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제9회 광주전남 창업유관기관 입주기업 투자 IR-DAY’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광주·전남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동강대 BI센터는 2017년부터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IR 행사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제9회 광주전남 창업유관기관 입주기업 투자 IR-DAY’를 개최했다. <동강대학교 제공>

를 열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IR에는 동강대를 비롯해 광주대·동신대·순천대 BI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의 입주기업 ▲원테크 ▲한국AI 산업기술원 ▲천부기업 ▲쥬메이드온 ▲쥬에코온 ▲쥬에스티테크 ▲쥬터윈포아씨티 ▲소셜밸류업㈜ ▲이온어스㈜ ▲쥬술라토즈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10개 회사는 사업계획서 점검을 위한 특강과 ▲환경 에너지 ▲정부지원사업 ▲투자 ▲IT Tech ▲디지털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향후 성장 방향 모색을 위한 네트워킹을 가졌다.

또 ‘실전 데모데이’를 갖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피드백도 받았다.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은 응용 SW 개발업체인 ㈜오픈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박경우 센터장은 “수도권 IR 행사는 지역의 창업 초기기업이 투자유치 경쟁력을 쌓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남경오 순천 금당고 총동문회장 취임



순천 금당고등학교 총동문회는 18일 “전날 제25대 회장에 남경오(10회·사진) 동문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순천 디해움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주철현 국회의원,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 동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들의 크고 작은 의견을 귀담아듣고, 나아가 동문과 함께 움직이며 성장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개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우리 동문의 숙원 사업이자 염원인 총동창회관 건립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 만큼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 동문이 공동체의 결속과 지력을 보여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회장은 “지난날 모교가 언젠가 내 삶의 중요한 기반이 돼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금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2만여동문 선·후배들과 함께 변함없이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양홍렬기자



오영순 남구의원 ‘공무직노조 감사패’ 받아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이 18일 남구청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실 신축 추진 지원, 공무직 문화탐방비 지원 등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영순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 존중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형우기자



##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100포기 김장 나눔 행사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8일 조선이공대학교 호텔조리파티셰과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100포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대학의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호텔조리파티셰과 학생들은 김장 재료 손질부터 담그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들랑달랑커뮤니티센터와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지역 내 무료 급식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민 호텔조리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배운 전공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조리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김장나눔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아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워크숍’ 성료

전남도는 18일까지 이틀간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스포츠 현장의 인권 보호 의식 강화와 지도자·선수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워크숍에선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스포츠 인권·윤리·성평등 분야 전문 강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로 설명하고 지도자와 선수 모두가 지켜야 할 인권 보호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병권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 현장 문화를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여), 정구(여), 근대5종(남·여), 카누팀(여), 우수팀(남), 스쿼시팀(여)은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금 5개, 은 4개, 동 5개를 획득했다. /양시원기자



조선대 동북아研, 중국서 ‘국제학술회의’

조선대학교는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가 최근 중국 대련에서 ‘2025 평화연대 동북아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와 (사)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등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5개국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중·러의 전략경쟁 심화와 한반도 분단 구조 등 동북아 지역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학술적으로 진단하고 역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신화관 인제대 교수와 사회로 김동길 북경대 교수와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을 제시했다.

/박선옥기자

## 장흥소방, ‘피난약자시설 안전 확보’ 기관 간담회

장흥소방서는 “최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노인 관련 피난약자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흥소방과 장흥군, 피난약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피난·소방시설 유지관리 방안과 화재 안전컨설팅,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노인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피난 동선 확보와 초기 대응 요령,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



했다.

장흥소방은 간담회를 계기로 피난약자시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순 점검을 넘어 지속적인 화재 예방 컨설팅과 안전관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흥=노형록기자

## 호남대 간호학과, 조선대병원에 헌혈증 100장 전달

호남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7일 재학생들이 ‘36.5℃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통해 마련한 헌혈증 100장을 조선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조선대병원 행정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헌혈증 전달식에는 김진호 조선대병원 원장과 이미라 간호부장, 하윤주 호남대 간호학과장, 조은아·문정은 교수, 이하정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윤주 간호학과장은 “예비간호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할 생명존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헌혈증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음 따뜻한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현재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선옥기자

### 결혼

▲백희순·남금자씨 아들 병원군, 김기중·박경숙씨 장녀 선아양=21일(일) 오후 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 지평동 573-1), 062-385-7001, 백희순(010-3608-4963).

### 부음

▲양향예씨 별세. 조기선(광주CBS 대표)씨 장모상=발인 19일(금) 오전 7시 진도군 삼림조합 직영추모관장례식장 3호실(061-544-6101).